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 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말라키 3:19-20	제2독서	테살로니카2 3:7-12	복음	루카 21:5-19
--------	------	-------------	------	---------------	----	------------

◎말씀 <종말 예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험과 곤궁에 처하게 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에 묵시(默示)문학이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혼란시기에 나오는 일종의 난세(亂世)문학입니다. 시리아 정권의 박해와 로마제국의 식민통치로 고통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새하늘과 새땅, 하느님께서 통치하는 '하느님나라'에 희망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실의에 빠진 백성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종교적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묵시문학도들은 자신만이 그 엄청난 미래를 훤히 안다고 자부하면서, 상징이나 비유, 우화등을 많이 사용하여 역사나 종말을 서술합니다. 그러니 묵시록적인 표현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대혼란이 생길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종말의 시기나 장소(루카17,20-21), 종말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루카 13,23)에 대한 호기심을 일축 하시고, 오히려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작은 묵시록이라고 일컫는 마르코 복음13장을 옮기면서 자신의 종말관에 따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서기70년경)에 쓰인 마르코복음이 예루살렘 멸망을 종말 직전의 전조로 여긴 반면, 서기 80-90년경 집필된 루카 복음은 예루살렘 멸망을 단순히 역사의 비극으로 보았지 종말의 전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루카 21,8), 전쟁과 반란에 대한 풍문(9절), 세계대전(10절), 큰지진과 전염병, 기근(11절) 등도 종말 직전의 전조는 아니고 다만 전조(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박해(12-16절)도 종말의 전조가 아니므로 현혹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고 권고합니다(19절).

그렇습니다. 곤경과 불안,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분쟁과 전쟁,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오직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이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 19일(화)	연중 제33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2,925.00 \$ 1,222.00
11월 20일(수)	연중 제33주간 수요일	오전 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610.00 \$ 230.00
11월 21일(목)	복되신 동정마리아 자헌 기념일	오후 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165.00 \$ 100.00
11월 22일(금)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오후 7시30분	기타수입/ACA	\$ 0.00
11월 23일(토)	연중 제33주간 토요일	오후 5시	합 계	\$ 5,252.00
11월 24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26명 성인: 183명
교무금 봉헌자	김은수. 구준모. 김종순(11-12월) 송민자. 이상인(10-12월) 손창식(9-12월) 이복임(1-12월) 김진태(10-11월) 김귀태(6-10월) 현익균. 이원건(10월) 김은영. 김병길. 우순이. 김채홍. 박을생, 박용호. 김영숙(11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연속극의 사랑이 아니다” - 프란치스코교황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미사 강론 중에서 발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에서 사랑받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길 바라합니다. 오늘 제1독서 로마서 대목은 ‘이방인들의 사도’ 바오로가 심지어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다소 교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자들 이상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승리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로를 불렀을 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도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연속극 주제가 아니라 강력하고 크신 사랑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느끼게 하는 진지한 사랑입니다. 바오로는 사랑으로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흔히 우리는 나쁜 순간이 닥치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함께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너, 나-너, 성과 이름을 가진 우리 각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몇 번이나 당신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심지어 ‘우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의 애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단죄하고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의 병아리들처럼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십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애뜻한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고,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탈출구를 제시하며 ‘친구야’(마태 26,50)라고 말하는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마음먹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따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배국.사도요한의 영혼	익명	생	김옥경.미카엘라의 건강회복	한은실.도미니카
연	김중수.요한의 영혼	김상범.히지노가족	생	(두둑)손채영.레이첼의 영육간 건강	할머니
연	정홍용.바오로의 영혼	박프란치스코	생	고원석.바오로,고공자.벨라뎃다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데레사
생	김은지.리드비나의 건강회복	박프란치스코	생	김은지.리드비나의 건강회복	청년부

간장종지  
 ◎징검다리◎  
 거센 물살 휘돌아 넘쳐흐르고  
 당신이 놓아주신 징검다리를 당신의 손잡고  
 꺾기고 넘어진 수풀과 바윗돌 구른다 해도  
 쟁충 쟁충 평화의 나라로 건너갑니다.  
 한광구요셉.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b>성당에 제출하는 CHECK 발행하는 법</b></p> <p><b>Payee to: <u>St. J.H.C</u></b></p>
---	--	--

<p>♥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 성 명: 조민우 * 출생일자: 2019년11월7일생 * 가족관계: (아빠)조성용.레오 (엄마)김남희.마리아 ( 형 )조재우 (누나)조수아 * 구 역: 3구역</p>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 1.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7일(일)성당에서 오후4시 출발  
참여단체;전교부.하상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2.모임안내  
꼬미시움 :17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 목 회 :24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구역장회의:24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연 령 회 :24일(일)오후1시.마태오방
- 3.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2일(금)오후7시30분.성당  
체험발표;김희정.가브리엘라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 4.사랑의 나눔 Giving Tree 안내  
목적:노숙자어린이학교(Muatard Seed)와 Nora's Place에 전달할 선물(중고가 아닌 New선물)  
기한:12월15일(일)까지
- 5.레지오마리아 연차총친목회  
일시:12월1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협조단원포함 모든 레지오단원은 참석해주세요
- 6.어르신잔치(사회복지부)  
일시:12월7일(토)성모신심미사후 친교실  
안사회.요셉회원은 적극 참여바랍니다.
- 7.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12월6일(금)오전9시30분.신부님  
박성진.율리아 자매님께 미리 신청바랍니다.

- 8.성가대원 모집  
구원자이신 예수님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미하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성탄성가연습:매주일요일 오후1시(베드로방)  
문의:이윤상(849-1202) 서안나(600-1936)
- 9.대림절 음악피정(찬미와 함께하는)  
일시:12월7일(토)오후7시-9시30분.성당  
12월8일(일)오후1시30분-3시30분.성당  
강사:원영배.어거스틴부제님(St.Bede성당)  
주제:오소서,임마누엘.  
천상의 노래를 품고 우리안에 오소서
- 10.교구 2차헌금 안내  
일자:24일(일)모든미사  
목적: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11.성지순례 안내  
일시:1월19일(일)-22일(수)멕시코 과달루페  
순례비용;\$1,180(1인) ※게시판참고해주세요  
신청;사무실(참가신청서 및 여권사본제출)
- 12.감사합니다  
달력광고(2020년):이진아변호사사무실(\$150)
- 13.주님!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정홍용.바오로형제님(정미정.루시아부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식사봉사(이번주);청년부 보조:김규철.송돈희  
식사봉사(다음주); 보조:송돈희.서향자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7~8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 폐 플라스틱음료병,캔 수집(친교실-청년회)

화답송	<p>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 - 러 주님이 오신다</p>
-----	----------------------------------

전례봉사	연중33주일(11월17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4)	대림제1주일(12월1일)	대림제2주일(12월8일)
해 설	김은선.제노베파	임상일.프란치스코	김선영.플로라	정미정.루시아
제1독서	조용주.마리안나	안선미.미카엘라	엄용덕.그레고리오	장석자.요한보스코
제2독서	이영숙.벨라뎃다	박춘자.마리아	엄선경.베로니카	장선순.글로리아
복 사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최진호.이상인	최준우.김규철
봉헌/기도/청소	7-8구역	7-8구역	9-10구역	9-10구역
헌금위원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유정임.나송희	임상일.박병수.안혜숙